

우리는 말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그러나 그것의 엄숙하고 진정한 뜻과 의미를 우리는 간파하지는 못하는것같다.우리가 성숙한 인격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동물이기에 같이 살아간다라는 수동적 의미이기보다는 우리모두는 사회적 책임을 같이 지며 살아야한다라는 능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본다. 사회적 도덕적 타락과 비윤리가 난무하는.., 이모든것에 대해 우리각자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뿐아니라 그것을 위한 고민과 갈등 그리고 나가서는 각자가 할수있는 최선의 일들을 나름대로 해나갈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더불어사는 세상에 한사람이 되는것이다. 그저 나하나만 배불리고 내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근시안적으로 살아가서는 안된다라는 의식들이 없을때 우리는 삶에서 고통과 절망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들을 피해갈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50 개주중에 커네티컷은 가장 부자중 한주이다. 그중 한가정, 아버지가 의사이고 딸들과 아내 이렇게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다. 아침일찍 몰래 침입한 20 대 와 40 대 두남자가 아버지와 엄마 작은 딸을 인질로 붙잡아놓고는 17 살의 큰딸을 거래은행으로 끌고가 강제로 15,000 불을 인출하게 했다. 이때 딸은 인출종이에 도와달라는 글과 함께 은행원에게 제출해 돈을 찾아갔고 은행원을 통해 연락을 받은 경찰이 집에 출동했지만 이미 엄마와 딸은 성폭행을 당한후 삼모녀는 죽음을 당했고 아버지는 간신히 살아나 중태가 된것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 것일것이다. 평화스럽고 부유한 한가정이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붕괴된것이다. 소설이나 영화도 이정도면 소름이 끼치기에 충분하다. 살아남은 이아빠는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게될까? 그충격은 아마 목숨이 붙어있는한은 그의 삶을 찌르고 할퀴며 이렇게 함께 가야할것이다. 퇴근길에 있는 내게 전화로 이 엽기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알리는 남편이 “그 두사람이 한사람은 9 년 다른한사람은 15 년을 감옥에서 살다나온 출감자래” 라는 이 마지막 소리가 내가슴을 꽂조이며 아득해지게 만든다. 순간 내머리속에는 극과 극의 사람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한쪽에는 내가 만나는 수감중에 있는 재소자들이 다른한쪽은 이 사건속의 출감자들이... 이들은 같은 수감생활을 했지만 이 두부류가 만들어내는 삶의 내용들이 극에서 극인것이다. 내가 만나는 많은

수감자들,, 그곳에서 변화받아 어떠한 방법과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회에 자그맣게라도 기여하고 싶어서 내가 매년 데리고가는 수백명의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지않고 그들앞에 다드러내 고백하며 “내가 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게 됐는지..” 그 죄의 댓가를 이곳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지불해야하는지, 교도소 안의 삶이 영화가 아니라 비참한 현실인것을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상세히 알게해주고싶어 열띤 간증을 하며 “절대 너희들은 우리와같은 잘못된선택을 해서는 안된다”라는걸.. 실수를 통해서 배울수있는것도 있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에는 너무 끔찍한 댓가를 지불해야하는 수감생활의 비참함을 부르짖으며 아이들에게 하소연하는 변화받은 재소자들... 많은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재소자들의 진심어린 노력들 ... 반면에 출감직후 끔찍한 재범으로 한가정을 몰살시킨 두 출감자 ..너무나 극적인 대조이다. 이들의 차이는 다름아닌 더불어사는 세상속에서 엄숙한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람과의 관계성속에서 찾고 발견한자로서 삶의 긍정적이고 바른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변화된 재소자이며 다른 둘은 그 만남과 기회를 갖지 못한것일것이다. 나, 나, 나만 잘살면 된다면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그늘진 자들에대한 엄숙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말이다 상처와 고통속에서 소외당한 한인사회속의 많은 가정과 청소년들, 그들에대한 진지하고 성숙한 책임의식이 없는한 우리는 또한 그 댓가를 우리자신이 우리자녀가 받고 살아가야한다는것에 눈을 떴으면 좋겠다. 보살핌을 받지못한 일그러진 심령을 가진 소외된자들이 우리자녀들에게 타락한 문화를 가르치고 마약을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차마 입에담지못할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낸다 라는것은 절대 비약만은 아닐것이다.